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물음** 수학 책에 “반지름  $r$ 가 5cm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의 ‘ $r$ ’가 ‘ $r$ 이’를 잘못 쓴 것이 아닙니까?

(강호영, 서울 성남고등학교)

**답** 그렇지 않습니다. ‘ $r$ ’가 맞게 쓴 것입니다. ‘ $r$ ’는 ‘알’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르’로 읽기 때문입니다. 즉 ‘아르가’와 같이 읽게 되므로 수학 책에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 $r$ ’ 다음에 주격 조사 ‘가’를 쓴 것은 옳은 것입니다. ‘ $r$ ’는 원어의 발음이 [a:ɣ]이므로 ‘아르’로 적습니다.

**물음** “빨리 병원에 옮겼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옮겼으니 망정이지’를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옮겼으니 망정이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까?

(정승호, 서울 종로구 혜화동)

**답** “빨리 병원에 옮겼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 까닭은 ‘망정’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망정’은 주로 ‘-기에 망정이지’, ‘-니 망정이지’, ‘-니까 망정이지’, ‘-어서 망정이지’의 꼴로 쓰입니다.

- (1)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기가 크게 다칠 뻔했다.
- (2) 우리가 한발 앞섰기에 망정이지, 읍내 지서에 연락이 되었다면 놈들이 지금쯤 여기로 몰려오고 있겠지?(김원일, 『불의 제전』)
- (3) 아버가 배 척이나 갖고 있으니 망정이지 돈 없으면 갈 데 없지, 창부 질밖에 못할 계집이라고요.(박경리, 『토지』)
- (4) 급년 농사한 것도 거의 다 익어서 머지않아 거두게 되었으니, 이왕 거두어서 돈을 장만하여야 망정이지 그것을 들에다 내버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아깝기도 하려니와 손복할 노릇이었다.(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이러한 유형의 말로는 “그 정도 다쳤으니 다행이지”, “앞으로 네가 하길 나쁠이지”, “시장하면 뭐든 맛있기 마련이지”와 같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 또한 모두 명사나 의존 명사에 속하는 말입니다.

‘-으니 망정이지’의 띄어쓰기에 혼란이 있는 것은 예전에 일부 출판물에서 ‘-으니 망정이지’를 붙여 쓰는 것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붙여 쓰는 것으로 다룬다면 하나의 어미라는 말일 텐데 그럴 경우 ‘준비했기에망정이지’에서 조사 ‘에’가 생략되어 ‘준비했기망정이지’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미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어미가 된다는 기술은 국어의 문법에서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미와 의존 명사가 연결된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음** ‘주둥이’와 ‘아가리’와 ‘부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현지, 경남 김해)

㉞ '주둥이'는 일부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의 뾰족하게 나온 코나 입 주위의 부분을 이르는 말로, 병(甁)이나 일부 그릇 따위의 좁고 길쭉하게 나온 부분을 이르거나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뾰족하게 튀어 나온 입 부분을 이른다는 점에서 '부리'와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재질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가리'는 물건을 넣고 내고 하는, 병·그릇·자루 따위의 구멍 어귀(물동이 아가리, 자루 아가리)를 이르는 말로, 굴·천막·하수구 따위의 드나드는 어귀(하수도 아가리, 동굴 아가리, 천막의 아가리)를 이르거나, 입을 속되게 이르기도(개 새끼가 아가리에 북어를 물고 달아났다.) 합니다. 들고 나는 입구라는 점에서 '주둥이'나 '부리'와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주둥이'나 '부리'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비교적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리'는 새나 일부 짐승의 길고 뾰족하며, 보통 뿔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는 입 부분(부리로 쪼다)을 이르는 말로,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총의 부리)을 이르거나 병과 같이 속이 비고 막혀 있는 물건의 가느다라며 터진 한쪽 부분(병의 부리/주전자의 부리)을 이르기도 합니다. 툭 튀어나와 있다는 점에서 주둥이와 상통하나 주로 재질이 딱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음** '학여울'은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혼동됩니다. [하겨울], [항녀울] 중에 어느 것이 바른 발음인지 궁금합니다.

(이금례, 서울 망원동)

㉟ 학여울은 [항녀울]로 발음해야 합니다. [하겨울]은 옳은 발음이 아닙니다.

학여울을 [항여울]로 발음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숨이불[숨니불], 맨입[맨닙]'처럼 '니' 소리가 첨가됩니다.

(1) 학여울 → 학녀울

그 다음에 '먹는[명는], 국물[궁물]'처럼 뒤소리의 영향을 받아 [항녀울]이 됩니다.

(2) 학녀울 → 항녀울

이와 같은 음운 변화를 하는 것으로는 막일[망닐], 샷일[상닐], 색연필[생년필] 등이 있습니다.

**물음** '그제서야, 이제서야'와 '그제야, 이제야'는 모두 맞는 표현인가요?  
(이정화, 서울 봉천동)

**답** '그제서야, 이제서야'는 비표준어입니다. '그제서야, 이제서야'는 명사 '그제, 이제'에 조사 '에서'가 줄어든 '서'가 붙고, 여기에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야'가 붙은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 이제'에는 조사 '에서'가 준 '서'가 붙을 수 없습니다. 조사 '에서'가 '서'로 줄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1)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서 만나기로 하였다. (○)

(2)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

(3)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고마운 마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4)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는가?

→ 이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는가? (×)

(5)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 학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에서’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이거나 출발점의 뜻을 가질 경우에만 ‘서’로 줄어들 수 있고, 근거나 비교의 기준,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서’로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제서야’는 처소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므로, ‘에서’가 준 ‘서’가 쓰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그제서야, 이제서야’는 ‘서’의 올바른 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 이제’에 ‘서야’가 결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제서야, 이제서야’는 ‘그제야, 이제야’의 방언형이나 잘못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물음** ‘좋아할 게다’가 맞습니까, ‘좋아할 거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모두 맞습니까?

(이병기, 광주시)

**◻** ‘좋아할 거다’가 맞고, ‘좋아할 게다’는 잘못입니다. ‘좋아할 거다’의 ‘거’는 의존 명사 ‘것’을 구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는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오는 경우와 서술격 조사 '이-'가 올 경우에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주격 조사 '이'가 올 경우에는 '게'가 되고, 서술격 조사 '이-'가 올 경우에는 '거-'가 됩니다. 언뜻 '거' 다음에 '이'라는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올 경우에도 '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이면, 할 것이고, 할 것이니'의 구어적 표현이 '할 거면, 할 거고, 할 거니'인 것을 보면, '거'에 '이다, 이고, 이니, 이면'이 결합할 때는 서술격 조사 '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때〉

게(←거+이) : 먹을 게 많다, 잡을 게 마땅치 않다

〈서술격 조사+어미가 결합할 때(이다, 이고, 이니, 이면)〉

거다(←거+이다), 거고(←거+이고), 거니(←거+이니), 거면(←거+이면) :

그 일은 그가 할 거고 이 일은 내가 할 거다, 집에 갈 거니?, 네가 볼 거면 네가 켜라.

그러므로 '거'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될 경우는 '거'와 '이'가 축약된 '게'가 맞지만, 서술격 조사와 어미의 결합형이 올 경우는 '게다, 게고, 게니, 게면'이 아닌 '거다, 거고, 거니, 거면'이 맞습니다.

**물음** '올 겨울이 좀 추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따듯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의 '-르 텐데'를 띄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원, 경북 영주)

**답** '-르 텐데'는 하나의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씁니다. '-르 텐데'의

경우 항상 '-르'이 선행하는 형식으로 쓰여 예문 (1)과 같이 그럴 것이라 추측하는 데 반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예문 (2)와 같이 뒤의 말이 생략되어 종결 어미처럼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미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 (1)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농구하기에는 좀 작구나.
- (2) 진작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르 텐데'는 '-르 터인데'의 준말로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터'가 결합한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르 텐데'로 띄어 씁니다. 이와 같이 단일한 어미처럼 보이는 어미들은 띄어쓰기에서 혼란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의존 명사 '터'가 들어 있는 '-르 테니', '-르 테냐', '-르 테고', '-르 테니까', '-르 테야', '-르 테다' 등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물음** '물 길러/길으러 가다'에서 '길러'와 '길으러' 가운데 어느 것이 맞나요?

(조세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답** '길다'의 '길-'에 '-으러'가 결합한 '길으러'가 맞습니다. '길다'는 '길어, 길으니, 길ն' 등으로 활용하는 디근 불규칙 용언입니다. 디근 불규칙 용언은 어간 말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만 '르'로 변하는 활용을 합니다. '물 길는 아낙네'처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길-'의 'ㄷ'이 그대로 유지되고, '물을 길어다가 먹다'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르'로 변합니다.

'길다'가 '길어', '길으니'처럼 활용하는 현상을 기본형이 '길다'인 것으로 착

각해서 '길러'처럼 쓰려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러 가다', '짐을 싣으러 가다', '점심 먹으러 가다'처럼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는 '-으러'를 연결해야 하고, '나물 캐러 가다', '두부 사러 가다', '놀러 오다'처럼 ㄹ 받침인 동사나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는 '-러'를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 길으러 가다'의 '길으러'는 'ㄷ' 받침을 가진 '길다'가 기본형이므로 '-으러'를 붙여야 합니다.